

##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정서지능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Emotional Intelligence

황혜정\*

Hwang, Hye Jung

김경희\*\*

Kim, Kyoung Hoe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factor structure of social competenc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ompetence and emotional intelligence in preschool children. The subjects were 503 3- to 6-year-old children. Instruments were the Emotional Intelligence Rating Scale for Preschool Children and The Social Competence Scale.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factor structures of The Social Competence Scale were confirmed. These factors were initiative, ability, and sociabilit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cial Competence Scale and the emotional intelligence scale was highly significant ( $r=.29$ ,  $p<.001$ ). Three sub-factors of The Social Competence Scale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total emotional intelligence score. Among the six sub-factors of emotional intelligence, 5 were related to the total score of social competence.

These were utilization of emotion, empathy, appraisal and expression of self emotion, relationship with teacher, and relationship with peers

\* 연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전문연구원

\*\* 김천대학 유아교육과 부교수

## I. 서론

인간은 태어나면서 부터 타인과의 접촉속에서 생활해가며, 차츰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지혜와 기능을 습득하게 되고, 더 나아가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를 알게 되고, 그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한다. 즉 인간은 사회화 과정을 통해 그 사회에 적합한 구성원이 되어 가며, 이러한 사회화 과정에서 사회적 능력이 획득된다. 사회적 능력은 아동이 유능한 사회성원으로 성장하고 생활하면서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사회적 능력에 대한 개념은 아동의 사회적 특성의 포괄적인 영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간과 공간적인 보편타당성을 갖는 개념이라기 보다는 각 문화권이 가지는 근본 가치를 반영하는 특수성을 지니는 개념이므로, 포괄적이며 그 내용이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국가 사회마다 그 정의가 달라질 수 있으며, 아동의 사회적 행동특성 및 영역에 따라 여러 맥락에서 강조되고 각기 다른 목적에 적용되고 있어 그 정의나 접근방식이 다양하지만, 크게 환경에 대한 적응의 동물행태학적 접근, 사회적 상호작용 이론적 접근, 인성구조 이론적 접근, 동기적인 접근을 강조한 개념들로 나누어 볼 수 있다(O' Mally, 1977).

동물학적인 관점에서는 사회적 능력을 환경에 적합한 행동을 나타내는 적응과정으로 인식한다. 각 환경마다에 내재하고 있는 상황들이 다양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다양한 상황의 환경에 적합한 행동을 함으로써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능력을 발달시킨다는 것이다(Connolly & Doyle, 1981).

상호작용론적인 관점에서 O' Mally(1977)는 사회적 능력을 다른 사람과 효과적이고 만족스러운 상호작용을 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Weinstein(1969)은 사회적 능력이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대인관계의 목적을 달성하는 능력으로서 타인의 행동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 다양한 행동유형과 다양한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내적 자원의 소유를 사회적 능력에 포함시켰다.

사회적 능력을 인성의 구조이론적인 측면에서 파악하는 관점에서는 사회적 능력이란 분리된 인성적 구조요인의 부가적인 결과이며, 다양한 구성인자로 형성되어 있는 인성구조 중에서 긍정적인 속성을 포함하고 있는 특성들로 본다. Baumrind(1973)는 사회적 책임성, 독립성, 성취지향성, 활동성 등을 사회적 능력의 속성으로 정의하였다.

사회적 능력을 동기적 측면에서 강조하는 관점에서는 이를 환경과 효율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유기체의 능력이라고 하였다(White, 1959). 여기에는 탐구, 인식, 관심, 지각, 언어, 사고 등이 포함되며 이 행동들은 본능적인 동기를 가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동기는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유기체의 근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상호작용을 통하여 적절한 학습을 하도록 하는 힘이다.

이와 같은 사회적 능력의 네 가지 관점은 개념과 접근방법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인 관점을 포함하고 있다. 즉, 광의의 사회적 능력이란 인간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특히 사회적인 측면을 강조한 개념으로 자신이 소속된 사회에서 적절한 기술을 사용하면서 필요한 사회적인 목표를 달성하고 나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달할 수 있는 능력이다(Ford, 1982).

O' Mally(1977)는 사회적 능력과 관계된 행동들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것이며 사회적 능력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인간 행동의 통합된 영역에서 개인의 사회적 발달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능력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아동의 사회적 능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이 연구들을 보면, 아동 개인적인 변인으로는 아동의 성, 연령, 신체적 외모, 학업성취 등의 변인이 연구되었으며, 가족 관련 변인으로는 가정 환경, 형제관계, 사회경제적 배경 등의 변인이 연구되었다. 부모와의 관계에 초점을 둔 연구들은 초기 어머니와의 애착 경험, 부모의 양육행동 및 태도, 아버지의 양육태도 및 참여도, 어머니의 취업유무, 부모의 언어통제 유형 등을 다루었다. 그 밖에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문제해결 기술, 정보처리 능력, 역할수용능력, 내외통제성 등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들이 있다(박금옥, 1997; 임정하, 1996 참조). 그러나, 사회적 능력과 최근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정서지능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는 아직 수행되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에 와서 지능의 본질에 심리학의 초점이 맞춰지면서 전통적인 학업 중심의 지능(IQ)에서 벗어난 새로운 지능 이론들이 속출하였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청소년 비행, 성인의 정신건강과 사회적 적응 등의 많은 교육적, 사회적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 기존의 IQ 이론이나 인지중심의 심리학, 교육학 이론은 설명력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학업적성 중심의 IQ개념만으로는 인간의 지적 능력을 설명하기에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과 더불어 확대된 개념으로서의 지능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개인의 성공적 삶을 예언해줄 수 있는 변인을 찾는 다양한 노력을 하게 되었다(Gardner, 1983; Goleman, 1995; Sternberg, 1985). 이에 따라 사회적 지능과 그 측정에 관한 관심이 다시 대두되

었으며, Sternberg의 사회적 지능에서 착안한 정서지능(Emotional Intelligence: EQ)의 개념이 Salovey와 Mayer(1990)에 의해서 제시되었다.

1990년대 초 Salovey와 Mayer는 인간의 내적 지능이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정서지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들은 정서와 지능은 상반된 것이 아니며, 정서는 적응적이고 기능적이어서 인지적 활동과 후속 행동을 구성하고 조직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 정서지능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표현하며 삶을 고양시키는 방향으로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은 잘 적응하며, 정서적으로 숙련된 개인은 정서적, 사회적 기능에 손상이 없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Mayer, DiPaolo & Salovey, 1990; Salovey & Mayer, 1990).

Salovey와 Mayer는 정서지능을 '자신 및 타인의 정서를 지각하고 표현하는 능력'이라고 최초로 정의하였다(Salovey & Mayer, 1990). 그 후 Mayer와 Salovey(1997)는 자신들의 견해를 보완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거쳐 '정서지능이란 정서를 정확히 평가하고 표현하는 능력, 감정에 접근하고 사고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정서를 발생시킬 수 있는 능력, 정서 및 정서와 관련된 지식을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정서적, 지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 등의 네 가지 능력을 포함하는 지능이다'라고 재 정의하였다.

Goleman(1995)은 정서지능을 자신의 정서를 아는 것(knowing one's emotion), 정서 조절(managing emotion), 자기 동기화(motivating oneself), 타인 정서의 인지(recognizing emotions in others), 대인관계 조절(handling relationship) 등의 5개 하위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정서지능이란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주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의욕을 잃지 않게 하

며 순간적인 만족을 지연시킬 수 있게 해준다. 또한 기분을 조절하고 고뇌 때문에 사고 능력이 방해를 받지 않게 하며, 감정이입과 희망을 키워 주는 능력이라고 하였다(Goleman, 1995).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정서지능을 '유아가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적절히 표현하며, 상황에 따라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 목표를 추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정서를 이용하는 능력, 감정이입을 통해 타인의 정서를 인지하는 능력, 그리고 정서를 대인관계에서 이용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김경희, 1998).

한편, 정서지능의 구성요소 중 자기동기화와 정서조절 능력은 사회적 능력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Mischel과 Peaker에 의하면, 이러한 정서지능은 사회적 적응 능력을 강하게 예측한다고 한다(박금옥, 1997). Salovey가 인간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정서지능 또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주장한 것과 같이 사회적 능력도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박금옥, 1997).

박은미(1995)는 유치원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조망수용능력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는데, 조망수용능력은 연구자에 따라 다소 용어의 차이는 있으나 타인의 시각적인 관점을 취할 수 있는 지

각조망, 타인의 생각, 지식, 견해를 추론, 평가하는 인지조망, 타인의 생각, 태도 등을 알고 이해하는 능력인 감정조망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중 인지조망과 감정조망은 그 의미가 정서지능과 유사한 개념으로, 박은미(1995)의 결과에 의하면 유치원에 1년을 다닌 유아집단에서는 사회적 능력 중 유능성이 인지조망수용 능력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또한, 유치원에 3년을 다닌 유아집단에서는 사회적 능력 중 유능성이 인지조망수용 능력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으며, 과민성은 감정조망수용 능력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정서지능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밝힌 연구가 아직 없는 실정이나, 사회적 능력과 정서지능에 대한 고찰을 통해 두 변인간의 관련성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정서지능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밝혀보고자 한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유아의 사회적 능력은 어떤 구인들로 구성되는가?
- (2)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정서지능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 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김천과 구미, 청주에 거주하는 만 3-6세 취학전 아동 503명으로, 남아가 272명(54.1%), 여아가 231명(45.9%)이었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5세 0개월이었으며 표준편차는 10개월이었다. 연구대상 유아의 연령과 성에 따른 분

〈표 1〉 연구대상 유아의 연령과 성에 따른 분포

연령	남아	여아	전체	(%)
3세	28	29	57	(11.3%)
4세	108	67	175	(34.8%)
5세	95	99	194	(38.6%)
6세	41	36	77	(15.3%)
전체	272	231	503	(100.0%)

포는 <표 1>과 같다.

## 2. 연구 도구

### 1) 정서지능의 측정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정서지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경희(1998)가 개발한 '교사용 유아 정서지능 평정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정서지능에 관한 관계문헌들(Goleman, 1995; Mayer, DiPaolo & Salovey, 1990; Salovey & Mayer, 1990) 외에 유아의 발달을 평정하는 도구, 유치원 생활의 적응을 평정하는 도구, 유아의 적응과 부적응 행동을 평정하는 도구 등을 토대로 그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문항의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여 재구성한 후 예비연구를 거쳐 완성되었다(김경희, 1998 참조). 이 척도는 6개의 하위요인(자기 정서의 이용, 타인 정서의 인식 및 배려, 자기 정서의 인식 및 표현, 감정의 조절 및 충동억제, 교사와의 관계, 또래와의 관계), 50개 문항(각각 12, 10, 9, 9,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서지능의 이론적 구성에 따라 정서지능과 관련된 내용을 기술하는 반대되는 의미의 쌍으로 되어 있다. 교사는 아동의 행동과 일치되는 정도에 따라 5점 척도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교사용 유아 정서지능 평정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전체 척도의 경우 .96이었으며, 정서지능 하위 요인의 경우 .86에서 .92의 범위였다. 재검사 신뢰도는 4세의 경우 .89, 5세의 경우 .87이었다(김경희, 1998). 본 연구에서의 Spearman-Brown의 반분계수 신뢰도는 .92이었으며, Cronbach의 alpha를 이용한 내적 합치도는 전체 척도의 경우 .86이었으며, 정서지능 하위 요인의 경우 .58에서 .89의 범위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유아의 정서지능 척도를 다시 요인분석하지 않고 연구자의 전 연구(김경

희, 1998)에서 분석된 요인에 기초하여 분석하였다.

### 2) 사회적 능력의 측정

유아의 사회적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경희(1993), 노명희(1995) 등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들과 Kohn과 Rossman(1972)의 Social Competency Scale, Gesten(1976)의 Health Resources Inventory(HRD)를 참고로하여 구순주(1996)가 제작한 사회적 능력 척도를 본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도성(8문항), 유능성(7문항), 사교성(8문항)의 세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척도이며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그렇지 않다'에 2점, '보통이다'에 3점, '그렇다'에 4점, '아주 그렇다'에 5점을 부여하게 되어 있다.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능력이 높음을 의미하며 각 요인별 Cronbach의  $\alpha$ 계수는 각각 .81, .81, .83이었다(구순주, 1996).

본 연구에서는 척도 중 세 문항(17, 18, 20번)은 한 두 단어만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21번과 23번 문항은 문장의 표현을 바꾸어 내용의 이해를 도왔다. 또한, 어머니의 응답이 가운데 3점으로 물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5점 척도를 4점 척도로 바꾸어 실시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에 2점, '그런 편이다'에 3점, '항상 그렇다'에 4점을 부여하였다. 본 연구대상 유아를 대상으로 한 사회적 능력 척도의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증은 결과 및 해석 부분에서 기술하였다.

## 3. 연구 절차 및 자료 분석

김천과 구미, 청주에 위치한 1개 유치원을 선

정하여 교사에게 '교사용 유아지능 평정 척도'를 평정하게 하였다. 연구자가 유치원을 방문하여 교사를 모아 놓고 연구의 목적과 의의를 설명하고 문항을 함께 읽어보면서 평정요령을 설명한 후, 교사에게 문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평정하도록 하였다.

연구대상 유아의 어머니에게는 '사회적 능력 척도'를 평정하게 하였다. 질문지를 총 581부 배부하였으나 503부를 회수하였으므로 86.6%의 회

수율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SPSSWin 5.0.2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 처리 방법으로는 기술적인 통계방법외에 유아의 사회적 능력의 구인을 알아보기 위해 사회적 능력 척도를 요인분석하였으며, 사회적 능력과 정서지능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Pearson의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 III. 결과 및 해석

#### 1. 사회적 능력의 구성 요인

유아의 사회적 능력의 구인을 알아보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회적 능력 척도'의 구인과 비교하기 위해서 '사회적 능력 척도' 23문항을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문항의 분포 정도, scree test 결과, 요인의 고유치와 이전의 요인구조(구순주, 1996)를 고려하여 요인 수를 3개로 정하여 요인분석을 하였다.

<표 2>에서 보면, 각 요인의 요인 부하량은 .36에서 .76으로 높은 편이었으므로, 제외시켜야 할 문항은 없었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요인별 문항내용은 구순주(1996)의 요인분석 결과와 한 두 문항에서 차이가 있었으나 전체적인 요인구성은 거의 유사하였다.

첫 번째 요인은 주도성 요인이라고 명명하였으며, 총 9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고유치가 7.27, 설명변량은 31.6%였다. 두 번째 요인은 유능성 요인이라 명명하였으며, 총 7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고유치가 2.00, 설명변량은 8.7%였다. 세 번째 요인은 사교성 요인이라 명명하였으며, 총 7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고유치가 1.63, 설명변량은

7.1%였다. 세 요인 모두가 누계적으로 설명하는 변량은 47.4%였다. 각 요인별 문항의 내용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사회적 능력의 하위요인간 상호상관 계수를 알아본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사회적 능력 척도의 하위요인간 상관계수는 .50-.60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이고 있으며( $p < .001$ ), 전체 점수와의 상관은 .78-.89로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다( $p < .001$ ). 이는 사회적 능력 발달의 상호작용적 특성 및 요인간의 중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능력의 전체점수는 하위 요인 점수를 합산하여 얻을 수 있다.

사회적 능력 척도의 요인별 평균, 표준편차 및 신뢰도 계수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원래 사회적 능력 척도는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4점 척도로 바꾸어 실시하였다. 전체 척도의 평균점수는 2.69이었으며,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능력이 높음을 의미하므로 본 연구대상 유아의 경우 사회적 능력 중 주도성이나 유능성보다 사교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척도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각 요인별 Cronbach의  $\alpha$  계수는 .86, .79, .77이었고, 전체 척도의 Cronbach의

〈표 2〉 사회적 능력 척도의 요인분석

문항 번호 및 내용	요인 1	요인 2	요인 3	공통분
20 친구를 쉽게 사귀다.	.75	.02	.28	.65
8 친구들과 같이 놀 때 앞장서서 친구들을 잘 이끌어 간다.	.71	.28	.11	.60
5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놀 때 놀이나 게임을 먼저 시작한다.	.69	.19	-.07	.51
1 처음 만나는 아이와도 친하게 잘 지낸다.	.67	.02	.17	.48
2 많은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잘 표현한다.	.65	.28	.09	.52
19 다른 아이들에 비해 친구가 많다.	.61	.04	.38	.52
13 여러 아이들 중에서 대표로 뽑힐 때가 많다.	.55	.41	.19	.51
14 어떤 일이나 행동을 앞장서서 하면 다른 아이들이 따라한다.	.54	.34	.15	.43
10 어떤 의견을 말하거나 제안을 하면 다른 아이들이 잘 따른다.	.36	.31	.35	.35
3 자신에게 조금 어려운 일도 끝까지 해낸다.	.15	.76	.01	.60
4 무슨 일이 실패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잘 되지 않아도 좌절하지 않고 잘 이겨낸다.	.18	.69	.01	.51
6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른이나 다른 아이에게 의지하지 않고 혼자 힘으로 해결한다.	.17	.68	.11	.50
9 어떤 일을 시키면 적극적으로 하려고 한다.	.28	.57	.16	.43
16 어른이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일을 시작한다.	-.03	.55	.29	.38
7 놀이나 일을 할 때 새로운 방법을 잘 생각해낸다.	.27	.51	.13	.35
12 무슨 일을 할 때 관심을 갖고 집중해서 한다.	-.03	.50	.33	.36
15 친구들과 사이가 좋고 친구들에게 다정하게 대한다.	.06	.07	.70	.50
22 친구들과 함께 놀거나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37	-.05	.63	.53
17 공동으로 놀이나 일을 할 때 다른 아이를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06	.21	.63	.44
23 친구들과 놀 때 놀이방법이나 장난감 사용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해준다.	.14	.20	.58	.40
11 다른 아이들과 함께 잘 어울려 지낸다.	.51	.06	.55	.57
21 주위의 돌아가는 상황을 잘 알아서 그에 맞게 행동한다.	.22	.32	.47	.37
18 실제로 하는 방법을 보여주지 않고 말로만 지시해도 알아듣고 그대로 행동한다.	.20	.41	.44	.40
고유치	7.27	2.00	1.63	10.90
설명변량	31.6 %	8.7 %	7.1 %	
누계 설명변량	31.6 %	40.3 %	47.4 %	

<표 3> 사회적 능력 하위요인간 상호상관

요인	요인1 주도성	요인2 유능성	요인3 사교성
요인1 주도성			
요인2 유능성	.51*		
요인3 사교성	.60*	.50*	
전체 척도	.89*	.78*	.81*

\*  $p < .001$

<표 4> 사회적 능력 척도의 요인별 평균, 표준편차 및 신뢰도 계수

요인	명칭	평균	표준편차	Cronbach $\alpha$
요인1	주도성	2.57	.42	.86
요인2	유능성	2.59	.39	.79
요인3	사교성	2.93	.34	.77
전체	척도	2.69	.32	.90

$\alpha$  계수는 .90으로 매우 높은 편이었다.

## 2. 사회적 능력과 정서지능과의 관계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정서지능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전에 정서지능의 요인별 평균, 표준편

차 및 신뢰도 계수를 산출하여 <표 5>에 제시하였다. 정서지능 전체 척도의 평균은 3.60이었으며,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지능이 높음을 의미하므로 본 연구대상 유아의 경우 자기 정서의 인식 및 표현, 교사와의 관계, 또래와의 관계에 대한 정서지능은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표 5> 정서지능 척도의 요인별 평균, 표준편차 및 신뢰도 계수

요 인	평균	표준편차	Cronbach $\alpha$
요인 1 자기 정서의 이용	3.66	.59	.73
요인 2 타인 정서의 인식 및 배려	3.73	.69	.81
요인 3 자기 정서의 인식 및 표현	3.99	.67	.80
요인 4 감정의 조절 및 충동억제	2.53	.62	.58
요인 5 교사와의 관계	4.03	.98	.89
요인 6 또래와의 관계	3.91	.97	.88
정서지능 전체 척도	3.60	.43	.86

<표 6>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정서지능의 상관

하위요인	주도성	유능성	사교성	사회적능력전체 척도
자기 정서의 이용	.14*	.21**	.18**	.20**
타인 정서의 인식 및 배려	.02	.15**	.17**	.12*
자기 정서의 인식 및 표현	.30**	.19**	.21**	.28**
감정의 조절 및 충동억제	.06	-.14*	-.08	-.04
교사와의 관계	.28**	.15**	.13*	.23**
또래와의 관계	.25**	.16**	.25**	.26**
정서지능 전체 척도	.28**	.21**	.23**	.29**

\*  $p < .01$  \*\*  $p < .001$



감정의 조절 및 충동억제는 매우 낮았다. 척도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각 요인별 Cronbach의  $\alpha$  계수는 .58-.89의 범위에 속하였으며, 전체 척도의 Cronbach의  $\alpha$  계수는 .86으로 높은 편이었다.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정서지능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표 6>을 보면, 사회적 능력의 하위요인과 정서지능의 하위요인간의 상관계수는 -.14에서 .30까지로 다양하게 분포하였다. 상관계수의 크기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18개의 상관계수 중 3개만을 제외한 15개의 상관계수가 유의하였다( $p < .01$  또는  $p < .001$ ).

'주도성'의 경우, '자기 정서의 이용'( $r = .14, p < .01$ ), '자기 정서의 인식 및 표현'( $r = .30, p < .001$ ), '교사와의 관계'( $r = .28, p < .001$ ), 그리고 '또래와의 관계'( $r = .25, p < .001$ ) 하위요인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고 있으나, '타인 정서의 인식 및 배려', '감정의 조절 및 충동억제'와는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즉, 주도적인 유아의 경우 자신의 정서를 잘 이용하고 인식하며 표현하고 교사, 또래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다고 할 수 있으나, 다른 사람의 정서에 대해서 인식하고 배려하며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충동을 억제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었다.

'유능성'의 경우 정서지능의 모든 하위요인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으나, '감정의 조절 및 충동

억제'와는 부적인 상관이 있었다. 즉 유능한 유아의 경우 자신의 정서를 잘 이용하고( $r = .21, p < .001$ ) 잘 인식하고 표현하며( $r = .19, p < .001$ ) 다른 사람의 정서에 대해서도 잘 인식하며 배려하고( $r = .15, p < .001$ ) 교사, 또래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나( $r = .15, p < .001; r = .16, p < .001$ ),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고 충동을 잘 억제하지 못한다( $r = -.14, p < .01$ )고 할 수 있다.

'사교성'의 경우, '감정의 조절 및 충동억제'를 제외한 정서지능의 나머지 다섯 하위요인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즉 사교적인 유아의 경우 자신의 정서를 잘 이용하고( $r = .18, p < .001$ ) 잘 인식하고 표현하며( $r = .21, p < .001$ ) 다른 사람의 정서에 대해서도 잘 인식하며 배려하고( $r = .17, p < .001$ ) 교사, 또래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나( $r = .13, p < .01; r = .25, p < .001$ ),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충동을 억제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었다.

이상의 요인별 상관관계와 함께 전체적인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정서지능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r = .29, p < .001$ ). 사회적 능력의 하위요인인 '주도성', '유능성', '사교성'은 정서지능의 전체 점수와 모두 유의한 상관이 있으며( $r = .28, .21, .23, p < .001$ ), 정서지능의 하위요인의 경우 '감정의 조절 및 충동억제'를 제외한 다섯 하위요인이 사회적 능력의 전체 점수와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r = .20, .12, .28, .23, .26, p < .01$  또는  $.001$ ).

## IV. 논의

사회적 능력(social competence)과 관련된 행동들은 사회생활에서 필수적이며, 학업성취를 예언할 수 있고, 인간 행동을 통합된 영역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므로(O'Malley, 1977) 매우 중요

하다. 사회적 능력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유아나 취학전 아동,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수행되어 왔는데, 이는 이 시기의 사회적 능력이 이후 청소년기의 성공적인 적응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Petit, Dodge & Brown, 1988).

아동기에 자기 자신을 이해, 수용, 조절하는 능력을 기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는 기회를 갖는 것은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Kurtines, 1989). 아동이 자신의 감정상태를 인식할 뿐 아니라 이를 조절할 줄 알고, 상대방의 사고, 감정, 의도 등을 이해하고 공감하여 기초적 수준에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인간관계 형성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Honig & Wittmer, 1994).

이러한 관점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정서지능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계획되었다.

유아용 정서지능 척도는 본 연구자가 개발하여 타당화 시키는 작업을 하였으며 타당도와 신뢰도 면에서 우수하여 유아의 정서지능을 측정하는 도구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김경희, 1998),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을 통한 구인 타당화 작업을 거치지 않고 척도에서 제시한대로 요인을 구성하여 그대로 사용하였다.

사회적 능력의 경우 구순주(1996)가 제작한 사회적 능력 척도를 본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사회적 능력과 정서지능의 관계를 알아보기에 앞서 본 연구의 유아를 대상으로 구성요인을 분석하고 하위요인간 상호상관과 내적 합치도를 구하여 그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사회적 능력 척도의 요인분석 결과, 구순주(1996)의 요인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주도성', '유능성', '사교성'의 세 요인이 얻어졌으나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요인별 상호상관 계수는 높은 편으로 모두 유의하였으나, 이는 요인간의 중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요인별 내적 합치도가

우수하였으므로 이 척도를 사용하는 것에는 큰 무리가 없으나, 좀 더 신뢰로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척도의 사용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사회적 능력과 정서지능의 관계는 매우 밀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결과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정서지능 중 자기 동기화와 정서조절 능력이 사회적 능력과 유사하다고 한 박금옥(1997)의 연구나 정서지능이 사회적 적응 능력을 강하게 예측한다고 한 Mischel과 Peaker(박금옥, 1997)의 견해와 일치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능력의 하위요인인 '주도성', '유능성', '사교성'이 모두 정서지능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이 중 '유능성'에 관한 결과는 정서지능과 유사한 개념인 인지조망수용 능력이 유치원 아동의 유능성과 유의한 상관이 있다는 박은미(199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사교성'에 관한 결과는 또래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결과들과 비교할 수 있다. 친구들과 사귀는 데에는 정서지능과 사회적 능력이 사용되어 지는데, 친구에게 감정을 표현하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이러한 능력은 사회적 인지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Denham, 1994). 장정애(1998)의 연구에서, 또래에게 긍정적으로 지명을 받은 아동집단이 부정적으로 지명을 받은 아동집단보다 정서지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교성과 정서지능의 유의한 관계를 지지해주는 결과이다. 정서지능을 요인별로 분석해본 결과, 또래에게 긍정적으로 지명을 받은 아동집단이 부정적으로 지명을 받은 아동집단보다 감정조절을 더 잘했으며, 더 긍정적이고 낙관적이었고, 감정이입을 더 잘하였다. 또한 대인관계도 더 원만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사교성이 높은 유아가 감

정조절 및 충동억제를 제외한 정서지능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더 높은 정서지능을 보인다는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 다만, 유아의 사교성이 감정조절 및 충동억제와 관련이 없다는 본 연구의 결과가 또래에게 긍정적으로 지명을 받은 아동집단이 감정조절을 더 잘했다는 장정애(1998)의 결과와는 불일치하였으나, 사회성과 정서지능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이 두 변인간의 관련성을 간과할 수는 없다.

정서지능의 하위요인 중 '감정의 조절 및 충동억제' 요인만 사회적 능력과 유의한 상관이나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이 요인의 낮은 평균점수로 해석해 볼 수 있다(<표 5> 참조). 다른 요인들에 비해서 '감정의 조절 및 충동억제' 요인의 평균점수가 매우 낮게 나왔는데, 이는 유아가 감정을 조절하고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이 다른 정서지능의 능력에 비해서 늦게 발달하기 때문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교사도 이 연령의 유아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을 크게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요인의 항목들에 대해서 유아들에게 좀 더 너그러울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가 '감정의 조절 및 충동억제' 요인의 낮은 점수를 야기시켰고, 사회적 능력과 '감정의 조절 및 충동억제' 요인과의 부적인 상관 또는 상관없음을 유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에 관한 부분은 추후 연구가 계속 이루어져서 밝혀져야 할 것이다.

발달은 점진적 누적적으로 이루어지며, 인간은 사회내에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생활하게 되므로 어린 시절에 적응적인 인간으로 성장하는 것, 즉 높은 사회적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능력의 유무는 타인과의 사회적인 관계를 맺고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의 성공적인 적응과 높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더욱 중요한 연구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능력은 아동에게 문화적 규범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요구하며, 이를 통해 아동은 성숙하고 책임감있는 성인으로 발달한다.

본 연구를 통해서 아동의 사회적 능력이 정서지능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아동에게 보다 긍정적이고 효율적인 사회적 능력을 키우도록 하기 위해서 정서지능 발달에 관심을 갖고 이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경북 김천과 구미, 충북 청주 지역에 거주하는 유아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우리 나라 유아 전체로 일반화시키는데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결과 해석시 주의하여야 한다는 제한점이 있으나, 유아의 정서지능과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를 밝히는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 참 고 문 헌

- 구순주 (1996). 어머니 관련변인과 아동의 사회적 역량과의 관계.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경희 (1998). 교사용 유아 정서지능 평정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노명희 (1995). 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사회적 능력.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금옥 (1997). 청소년들의 자기조정학습방략 정도와 학업성취 및 사회적 능력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원 박사학위 논문.

- 박은미 (1995). 유치원 교육연한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조망수용능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경희 (1993). 부모의 언어통제유형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임정하 (1996). 아동이 지각한 또래관계와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장애 (1998). 초등학교의 감성지능과 학업성취, 학교적응, 사회성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Baumrind, D. (1973). The development of instrumental competence through socialization. In A.D. Pick (Ed.),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7, 3-46.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Connolly, J., & Doyle, A.B. (1981). Assessment of social competence in preschoolers: teachers versus peers. *Developmental Psychology*, 17, 454-462.
- Denham, S.A. (1994). Preschoolers' affect and cognition about challenging peer situations. *Child Study Journal*, 24(1).
- Ford, M.E. (1982). Social cognition and social competence in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18, 323-340.
- Gardner, H. (1983). *Multiple intelligence: the theory in practice*. NY: Basic.
- Gesten, E.L. (1976). A health resources inventory: the development of a measure of the personal and social competence of primary-grade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20, 504-514.
- Goleman, D. (1995). *Emotional intelligence: why it can matter more than IQ*. NY: Bantam.
- Honig, A.S., & Wittmer, D.S. (1994). Encouraging positive social development in young children. *Young Children*, 49(5), 4-12.
- Kohn, M., & Rossman, B.L. (1972). A social competence scale and symptom checklist for the preschool child: factor dimensions, their cross-instrument generality, and longitudinal persist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6, 430-444.
- Kurtines, C.A. (1989). *Developing self-esteem and creativity in the preschool child*.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ami.
- Mayer, J.D., DiPaolo, M., & Salovey, P. (1990). Perceiving the affective content in ambiguous visual stimuli: a component of emotional intelligenc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4, 772-781.
- Mayer, J., & Salovey, P. (1997). What is emotional intelligence? In P. Salovey & D.J. Sluyter,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educational implications* (pp. 14-30). NY: Basic.
- O'Mally, J.M. (1977). Research perspective on social competence. *Merill Palmer Quarterly*, 23(1), 29-44.
- Petit, G.S., Dodge, K.A., & Brown, M.M. (1988). Early experience, social problem solving patterns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58, 324-340.
- Salovey, P., & Mayer, J.D. (1990).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9, 185-211.
- Sternberg, R.J. (1985). *Beyond IQ: a triarchic theory of human intelligence*.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einstein, E.A. (1969). The development of interpersonal competence. In D.A. Golsin (Ed.), *Handbook of socialization theory and research*. Chicago: Rand McNally College Publishing.

White, R.C. (1959). Motivation reconsidered: the concept of competence. *Psychological Review*, 66, 297-333.